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선포

11월 11일 전국 최초 'GMO 재배 금지·안전관리 선포식'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생물다양성 침해 선제 대응

고창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생물다양성 침해를 막고자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를 선포한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 '제22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에 전국 최초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및 안전관리 선포식'을 개최한다.

고창군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2월 전북지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특정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

해 재배작물의 제조제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를 섭취하는 가축이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현재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 화제가 떠오를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경우 관리되지 않은 채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재배된다면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적 측면에

서 예측불허의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창군은 선포식을 계기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토종 작물의 퇴화와 계속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행정과 지역농민들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나갈 방침이다. 유이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자 고창군, 취득세 감면·환급

고창군이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환급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 개정 전인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5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또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시장 안정 방안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세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내달 28일 개막...전국민 대상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군산대학교가 주관하는 '군산 세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다음달 28일 군산대 체육관에서 열린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대회는 증가하는 지역 내 e-스포츠 문화 수요 충족과 생활 스포츠로서의 세대간 문화 소통의 장이다.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5인 팀전), 배틀그라운드(2인 듀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4인 팀전) 3종목으로 펼쳐진다. 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남원시, 확대 추진

남원시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와 우량 액비(액체비료)의 농경지 환원을 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남원에서는 돼지 11만3000마리가 사육되며 연간 21만1000t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다. 이 중 액비화는 61.6%인 13만t, 퇴비화는 18.9%인 4만t, 정화방류는 9.4%인 2만t, 기타처리 10%인 2만1000t이다. 남원시는 오는 2022년 퇴비화 14%, 액비화 66%, 정화방류 10%, 기타처리 10%를 목표로 액비화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 현장 컨설팅과 액비와 취 해소를 위한 살포제 토양성분 분석, 시비처방서 및 부속도판정, 액비반출 사전 승인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액비의 품질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종농가에 액비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 수요가 늘어 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폐핸드폰 수거해 취약계층 돕는다

금광보다 4~80배 자원 효율 수익금 기부...기념품 제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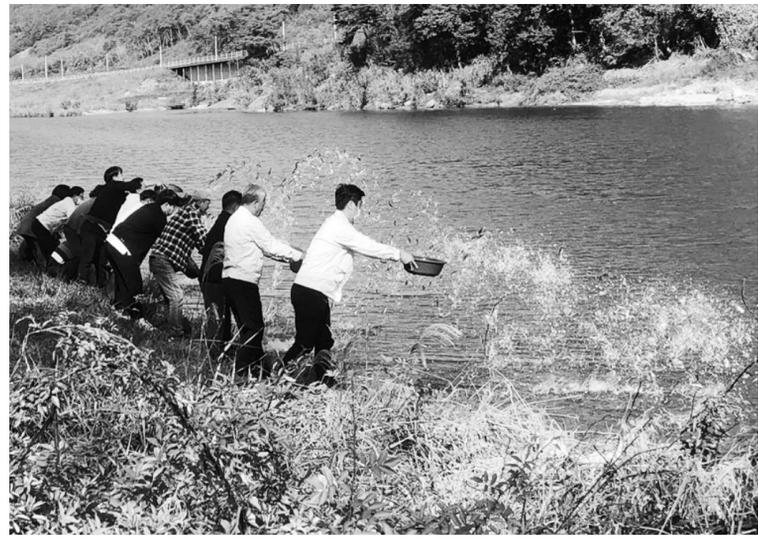
남원시는 도시광산 발굴의 일환으로 '녹색 남원'을 만들기 위해 폐핸드폰을 수거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중앙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부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비롯한 배터리, 충전기 등을 수거한다. 폐핸드폰 등을 제공하는 시민에게 'uv 칫솔살균기' 등 기념품을 준다. 남원시는 수거된 폐휴대폰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금속광물자원을 추출, 재사용해 발생한 수익금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관주 남원시장은 "금광에서 1t 채굴 시 금 5g을 얻을 수 있으나 폐휴대폰 1t에선 금 400g을 얻을 수 있어 기존 금광보다 4~80배 자원효율성이 높다"면서 "도시광산발굴 사업에 남원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가 도시광산 발굴 사업으로 오는 29일까지 '폐휴대폰 수거행사'를 실시한다. (남원시 제공)

순창군, 어종·수산자원 증식 쏘가리 치어 4000마리 방류

순창군이 섬진강의 어종 확대와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해 쏘가리 치어를 대량 방류했다. (사진) 순창군은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적성면 내월교 섬진강변에서 쏘가리 치어 4000마리를 방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쏘가리 치어는 길이 8cm 내외 크기로 어류전염병 검사를 통과했다. 2~3년이 지나면 섬진강의 어족자원 증대와 수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섬진강 내수면 생태계를 복원하는 치어 방류 사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외래어종 퇴치 및 불법어로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온라인 그랜드 취업박람회 익산시, 다음달 6일까지

익산시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맞춤형 인재 채용 기회 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익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홈페이지(iksam.coachjob.net)를 구축,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원하는 익산과 전북지역 50여개 참여 기업들을 위해 홈페이지 안에 배너형 채용공고를 운영한다. 참여 구직자들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 구직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화상면접, 1대1 온라인 취업클리닉, 280여개 취업교육동영상 제공, 자재면접채용관 등을 개설해 제공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익산시와 전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익산시고용안정일자리센터, 전북소재 대학교, 익산 특성화 고등학교 등이 협력해 진행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